



## 업계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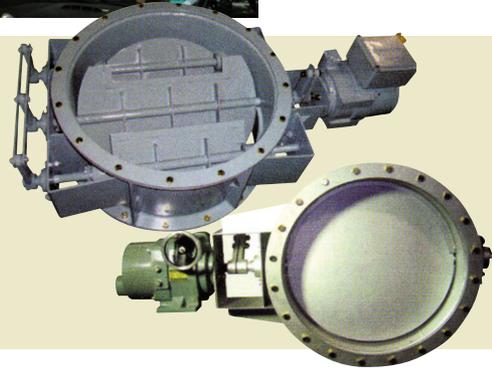
• 신화기연(주)

글

• 이미숙  
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팀 과장

# 화재예방을 위한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다

이번 호에는 우리 협회 인천지부의 추천을 받아 화재안전의식이 남다른 “신화기연(주)”를 방문하여 차형규 사장을 만나보았다.



## 산업용 액추에이터 등을 제조하는

**신화기연(주)** 신화기연(주)는 1987년 6월 1일 서울 구로에 설립되어 액추에이터, 모터실린더, 댐퍼 등 산업용 공장설비를 전문적으로 생산·시공하는 업체이다. 세 번의 공장 확장 이전을 통해 현재의 인천 남동공단에 자리 잡은 신화기연(주)는 숙련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 최대한의 고객만족, 확실한 품질관리로 최고의 제품만을 공급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새로운 제품 및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화기연(주)의 주요 생산용품인 댐퍼 액추에이터는 높은 장소, 고온, 분진 발생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댐퍼나 기계장치를 리모트 콘트롤로 조작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로, 보수관리가 용이하며 신뢰도가 높아 제철, 시멘트, 비철금속, 전력 등 산업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신화기연(주)는 전 직원 25명, 연 매출액 35억원의 작은 기업이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IMF 등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낸 견실한 중소기업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차형규 사장의 인내와 열정 때문이라 생각된다.

차형규 사장은 젊은 시절 공장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흥분이 났다고 한다. 그래

서 “나의 공장을 짓겠다.”는 꿈을 안고 일부러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영업,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후 비로서 꿈을 이루게 되었다.

처음엔 실수도 많았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덕분에 꾸준히 공장을 확장 이전해 왔으며, 작년에는 공장 2개 동(연면적 4,600㎡)을 새로 증·개축하였다. 또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1999년 ISO9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매출액의 약 40% 가량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로 수출하여 2000년에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도 선정되었다.

### 철저한

#### 화재안전관리

20여 년간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두세 번의 작은 화재사고를 경험하고 주변 공장의 화재사고들을 목격한 차형규 사장은 화재안전관리에 있어서 철두철미하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클린사업장’을 올해 초 신청하여 공장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관리 함으로써 화재 위험요인 등을 대폭 줄였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형규 사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소화기를 공장 내 구석구석에 두고 항시 점검을 한다. 수시로 공장을 다니며 조그마한



신화기연(주)의 차형규 사장



위험요인도 지나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잔소리를 많이 해서 직원들로부터 잔소리꾼으로 통한다니, 가히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된다.

특히 소방호스 관리 불량 등으로 화재 시 진압이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소방호스 체크를 위해, 차 사장은 1년에 한번씩 소방호스를 모두 꺼내어 직원들과 함께 물탱크의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물을 뽑아 보고 물탱크를 다시 채워 넣는다고 하니 그 투철한 화재안전의식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화재사고는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안일함에 사로잡혀 있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차형규 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화재사고로 인한 불행을 생각한다면 화재예방을 위한 금전적·시간적 투자는 절대로 아까울 수 없다. 잘못 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체크하는 게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

#### 탐방을 마치며

작지만 알찬 기업 신화기연(주)를 둘러보고 나서 느낀 점이 많다.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법규 수준까지만 간신히 관리하고 있는 여느 기업들과 달리 사업장 내 화재안전을 위해 사장이 직접 몸소 실천하고 행동하고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투철한 화재안전의식과 실천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앞으로도 신화기연(주)가 번창하여 다른 이들의 꿈도 이루어줄 수 있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 ☺